

고물가·불황에 '교육 열기' 식었다...지역 사교육비 지출 '뚝'

국가데이터처, 2025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광주·전남 전년비 각 11%·7% 줄어
참여율도 17개 시·도 중 최저 수준
코로나19 이후 5년만에 감소 추세

고물가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가계 부담이 커지면서 지역 사교육비 지출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7만2천원으로 전년(41만3천원)보다 11.0%(4만1천원) 감소했다.

학년별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34만6천원, 중학교 37만8천원, 고등학교 41만3천원으로 집계됐다.

사교육 참여율도 낮아졌다.

광주지역 사교육 참여율은 71.7%로 전년(78.2%)보다 6.5%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서울(82.6%)을 비롯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학교급별 참여율은 초등학교 80.0%, 중학교 68.3%, 고등학교 60.7%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역시 사교육비가 감소했다. 전남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0만9천원으로 전년(32만원)보다 6.7%(2만원) 줄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0만7천원, 중학교 33만6천원, 고등학교 28만5천원으로 조사됐다.

전남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서울(66만3천원)과 비교하면 약 2.1배의 격차를 보였다.

전국적으로도 사교육비 감소세가 나타났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천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4년보다 1조 7천억원(6.7%) 감소했다.

앞서 사교육비 총액은 2021년 23조4천억



류창진 국가데이터처 복지통계과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 2022년 26조원, 2023년 27조1천억원, 2024년 29조2천억원으로 4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하며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

섰다. 지난해 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502만명으로 전년보다 12만명(2.3%) 줄었다. 다만 학생 수 감소폭보다 사교육비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난 점이 특징이다.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을 보면 초등학교가 12조2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7조6천억원, 고등학교 7조8천억원 순이었다.

초·중·고 모두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감소폭은 초등학교가 7.9%로 가장 컸으며 고등학교는 4.3%, 중학교는 3.2% 각각 줄었다.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 시간 역시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은 75.7%로 전년보다 4.3%포인트 하락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73.0%로 전년보다 5.0%포인트 감소했고 고등학교는 63.0%로 4.3%포인트, 초등학교는 84.4%로 3.3%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은 초등학교 7.4시간, 중학교 7.2시간, 고등학교 6.6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안태호 기자



광주지방국세청·광주지방세무사회 협력 강화

법인세 성실신고·세정지원 동반자 역할

광주지방국세청(이하 국세청)과 광주지방세무사회(이하 세무사회)가 법인세 성실신고와 세정지원을 위해 동반자적 협력에 나선다.

국세청은 12일 세무사회 초청으로 세무사회 관 2층 회의실에서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6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 등을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세정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국세청은 간담회에서 법인세 신고관리 기본

방향, 신고도움자료 사전안내 현황, 신고편의 제고를 추진사항, 세정지원 현황, 공익법인 신고방법 등을 안내했다.

세무사회는 납세자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가감없이 전달했고, 국세청은 이를 귀 기울여 듣고 해결 방안 등을 공유했다.

김학선 광주국세청장은 "오늘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앞으로도 광주국세청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협력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박은성 기자

농협전남본부, 상호금융대상평가 전국 최다 선정

32개 농축협 대상·최우수상·우수상 수상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는 12일 "지역본부 가 지난 10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실시한 '2025년 상호금융대상 시상식'에서 전국 16개 시도중 최다 사무소인 32개소가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고 밝혔다.

상호금융대상 평가는 전국 1천110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재무, 고객, 사업, 학습부문 등 총 30여 개 항목을 통해 신용사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농축협을 선정하는 상호금융부문 최고의 시상제도이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땅골농협은 대상 수상을 그리고 삼호농협, 서영암농협, 장흥축산농협, 화산농협, 영암남주농협, 신북농협, 공산농협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동광양농협 등 2개 농협도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이광일 농협전남지역본부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낸 임직원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농업인, 조합원,



고객들을 위한 지역밀착형 상호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농어촌공, 인공지능 활용 교육 실시

농촌공간계획·협약 지원 서비스 고도화

한국농어촌공사가 인공지능 기술 내재화를 통해 일하는 방식 혁신과 농촌공간계획 지원 역량 강화에 나섰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2일 "지난 10일 지역개발 지원단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활용 업무 효율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으로서 중앙정부(농식품부)의 농촌공간계획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계획 수립과 농촌협약체계를 지원하는 등 정책 활성화에

도 앞장서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을 접목한 농촌 교통 맞춤형 모델 개발' 등 관련 업무 범위와 업무량이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공사는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개발지원단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공사 인공지능 담당자의 이론 강의로 시작했다. 교육생은 '챗지피티'와 '제미니' 등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침과 더불어 질문 작성 기법을 학습했다. 이후 선임연구원들이 인공지능 실무 적용 사례를 공유했으며, 인공지능 기반 협업체계 구축 방안을 함께 논

의했다.

공사 지역개발지원단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인공지능 문해력을 높여 생산성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인공지능 활용 방안 공유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법령 요약, 자료 시각화 등 농촌공간계획에 수반되는 행정 업무처리 시간을 30% 이상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이진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장은 "알하는 방식을 혁신해 단순 반복 행정업무 처리 시간을 줄이고, 농식품부와 지방정부에 더 깊이 있는 정책 제언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인공지능 활용이 농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재만 기자

광주 안의 유일한

천환경 수목장

아름다운 자연

사용기한 없음

365일 관리

전문 이장

가족구성 가능

광주시청 20분

수목장 · 묘지 이장 · 장례

상담: 062-449-4446